

이름 \_\_\_\_\_ 최다솜 \_\_\_\_\_

##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Texas A&M
파견기간	2011.08.30~2012.05.12
귀국여부	네 (    o    )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 귀국 예정일을 적어주세요.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Prin of macro econ(macro econ):거시경제학 기본으로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쉽게 배웠던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p> <p>Theatre art: 전공과목 외에 새로운 분야를 듣고 싶어서 선택했던 과목입니다. 예술의 역사와 연극의 기본적인 배경을 들을 수 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p> <p>Marketing: 이 과목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너무 많았고, 교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너무 어려웠습니다.(남부 특유의 억양이 강했습니다.) 결국은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p> <p>Music: 폴 네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음악의 기초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양한 음악가들의 생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더욱 재밌었고 많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Prin of micro econ: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거시경제학 교수님을 또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역시나 한국에서 경제를 배웠을 때보다 쉬웠던 것 같습니다.</p> <p>International management: 처음으로 들었던 수준 높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 수도 적고, 토론 식 수업이었던 것은 물론 매 시간마다 발표를 해야해서 힘들었지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고, 제 틀을 깰 수 있었던 고됐지만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p> <p>Comparative Psychology: 비교 심리학으로 심리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들었지만 주 내용은 생물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 관련된 진짜 실험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p> <p>Badminton: 활동적인 수업을 듣고 싶었고, 수업 시간에 친구사귀기에는 체육과목이 쉽다고 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p> <p>Racquetball: 한국에서는 라켓볼을 접하기 쉬운 편이 아니어서 미국에서 해보자 싶어서 선택하였습니다. 제일 즐겁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p> <p>Self defense: 라켓볼 수업과 마찬가지로 2학기는 활동적인 수업을 위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수업을 추천하여서 들은 과목</p>

	인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뽕뽕일으키기도 못했던 제가 이 수업을 들은 후 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면 대략으로라도 적어주세요.</p> <p>학비: \$3600 + \$3600 = 7200</p> <p>기숙사+보험+다이닝달러 = \$2200 + \$2200 = 4400</p> <p>생활비 = \$450 * 10 = 4500</p> <p>겨울, 여름방학 여행 = 1000 + 1000 = 2000</p> <p>총 = \$ 18100</p>

##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p>학교기숙사( o ) : Spence hall</p> <p>홈스테이 ( )</p> <p>외부 아파트( )</p> <p>기타( )</p>
숙소비용	1600달러(semester)
숙소평가	South에 있어서 버스 타는 곳과 가까워서 좋았고, Dining hall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기숙사도 깨끗했고 2인실이어서 편했습니다. 화장실이 공용이었다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청소가 매우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식사	<p>학교 Meal Plan ( o )</p> <p>학교식당 개별이용 ( )</p> <p>직접 요리 ( )</p>
식사비용	다이닝 달러를 구매하여 각각 다르지만 \$600+30meals를 구매하면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남자의 경우 조금 모자랄지도)
식사평가	<p>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을 사먹으면 됩니다.</p> <p>파스타가 특히나 맛있었습니다.</p> <p>그외에 치킨, 브리또, 퀘사디에, 피자 등 취향에 따라 그때그때 사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맛은 다 좋습니다.</p>

보험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했고, 가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달 생활비(대략)	달달이 450씩 받았습니다. 다이닝 달러로 인해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가면 좋았을 것들에 대하여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먼저갔던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것들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걱정되서 사갔던 것들은(가격이나 질 면에서)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다 똑같이 팔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종류도 미국에 아예 없을 것만 같았는데 미국 마켓에서 싼가격에 거의 한국과 비슷한 가격에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짐 많이 늘려서 사가는 것보다 거기가서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날에는 꼭 월마트를 들려서 침구를 살 것을 권하며, 미리 미국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생활 영어를 익혀갔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날 저희는 그 땡별을 걸어 다녔는데 미리 교환학생 담당자를 만나서 버스같은 것에 대해 물어보면 훨씬 다니기 편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Texas A&M을 다녀와서 한달간의 꿈을 꾸 것만 같습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만 같아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일 기억나는 것은 항상 가방을 매고 도서관에 갔던 것과 학구열 넘치는 그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기억입니다.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사서 영화에서 본 것 처럼 미국 생활을 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졸음을 떨치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배고파서 이것저것 많이 사먹다가 다시 살이 찌고 운동한다고 열심히 Rec센터 다니다가 친구들 만나서 파티하다보면 다시 물거품이 되는.. 이러한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텍사스가 사실 너무 시골이다 보니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심심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좋은 친구들 덕분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바베큐 파티도 하고 가끔은 친구 집에서 크게 파티도 하고 Girl's night도 하고 미국 스타일의 이런 저런 생활들을 하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 때는 당연히 있던 환경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속의 한 장면처럼 신기하기만 합니다.

위에 언급했지만 제가 갔던 대학교의 도서관은 제가 갔던 도서관들 중 제일 좋았습니다. 예전에 뉴욕대학교의 도서관도 가보았지만 제가 생활을 해서인지 제가 다녔던 도서관이 더 좋았고,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도서관에는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누워서 정말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복도에서도 노트북을 하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헐' 싶었으나 지나고 나니 남의 눈 신경쓰지 않고 자기 할일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더 좋아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대학교의 REC센터는 최고였습니다. Recreation center라는 곳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농구장도 있고, 에어로빅장, 댄스장, 헬스장, 양궁장, 라켓볼과 배드민턴 칠수있는 곳,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으로 정말 말 그대로 최고였습니다. 학생들 말에 의하면 이 곳의 유지비를 위해 학비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저희는 한국의 학비로 이러한 시

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최고의 행운아인것 같습니다.

미국에 딱 도착하였을 때 학생들을 보고 느낀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한국의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대학교 들어오면 꾸미기 바쁜데, 미국 학생들은 정말 츠리닝 차림으로 학교 다닌 것을 보고 '와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근처 Bar를 가게 되었는데 그 츠리닝만 입던 학생들이 짹 빼입어서 변신한 모습을 보고 때와 장소에 따라 옷을 매우 확연히 다르게 입는 모습을 보고 초기 수업시간에 화장하고 꾸미고 갔던 제 모습이 왠지 웃겨보였습니다. 그 후에는 물론 저도 츠리닝을 열심히 입으며 편안한 학교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녀와서 가장 변한 것은 가치관 같습니다. 한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타인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생들은 꽤나 독립적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기대어 사는 학생들도 많았으나,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때는 부모님도 터치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학생의 몫으로써, 결정하는데에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모습또한 본 받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녀 온 후 우선 한 달은 쉬었습니다. 나태한 하루를 보내며 친구들과 만났지만 다음 달 부터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합니다. 제가 다녀왔던 교환학생이란 이 타이틀은 비록 이력서에 딱 한 줄로 남겠지만 거기서 배워 온 많은 것들은 앞으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신 국제본부교류 선생님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